



제목	The Cyrus Cylinder: The King of Persia's Proclamation from Ancient Babylo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B.Tauris
발행일	2013. 3. 26.
저자	Irving Finkel(편집자)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160
ISBN 또는 ISSN	978-1780760636

내용 요약

이 책은 1879년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발굴된 실린더 모양의 키루스 포고령에 관한 글이다. 키루스 실린더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투탕카멘의 온전한 무덤만큼 진귀한 유물이다. 실린더 속에 당시의 전 세계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원전 539년 바빌로니아 정복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바빌로니아 지배자인 나보니두스(Nabonidus)의 퇴위를 기록하고 있다. 길이 23cm, 지름 10cm의 돌에는 종교의 자유, 피정복민의 경제 보장, 유물 반환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문으로 불린다. 그 선언을 시작으로 키루스는 바빌론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이러한 중요하면서도 반환 논란에 휩싸인 유물을 가지고 있는 대영박물관이 2010년 워크숍을 주최하였고, 이때의 논문들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1장은 바빌로니아의 관점에서 본 키루스 실린더를 설명, 45구절 전체 문장을 번역한 후 정확히 실린더가 아니라 원통 모양이라고 지적하였다. 바빌로니아 정복과 권력의 이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장은 키루스 실린더의 발견과 수송하는 과정에 관한 글이다. 3장은 키루스 실린더의 전시와 복제품에 관한 설명이다. 4장은 키루스 실린더의 상징물 창조와 테헤란 국립박물관에 대어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5장은 페르시아의 관점에서 본 키루스 실린더를 서술하였다. 부록으로 키루스 실린더의 번역에 관한 설명을 실고 있다. 대영박물관이 이란에 유물을 대여해 주어 키루스의 중요성을 더욱 알렸다고 설명함으로써 영국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